

'살림 팍팍' 노후대비 여력 없다

은행권, 퇴직금 등 목돈 예치 금융상품 판매 저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행들이 앞다퉀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잔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노후대비 금융상품이 건강관리 우대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고객 입장에서 보면 펀드나 일반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노후대비를 위한 목돈을 예치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타스연금예금'의 판매실적도 현재 16억4천600만원(51

플랜저축예금'과 '적립예금'의 경우 14일 현재 각각 69억2천300만원(2천572좌)과 1억1천800만원(66좌)이 팔리는데 그쳤다. 35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 상품은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 혜택과 함께 실적이 우수한 만 50세 이상의 고객에게는 건강관리 우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퇴직금 등 목돈을 예치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타스연금예금'의 판매실적도 현재 16억4천600만원(51

좌)에 불과하다. 상해 및 질병 등에 대해 입원의료 실비를 보장해주는 우리은행의 건강관리형 정기예금인 '뉴티플러스 정기예금'(연 4.6%)도 지난해 9월 출시된 이후 2월 말까지 500억 원여치(2천108좌)만 팔렸다.

국민은행의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인 'KB시니어웰빙통장'의 경우 출시한 지 2년 가까이 되지만 판매 실적은 2천976억원(2만8천242좌) 정도다. 지난해 9월 내놓은 '명품저축통장'이 70여일 만에 2조원 넘게 팔린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위탁판매중인 미래에셋 연금저축도 현재까지 판매액이 56억원에 불과하다. 이 상품은 만 55세까지 최소 10년 이상 적립할 경우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만기 납입후 5년이상 연금을 지급받지만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처럼 노후대비 금융상품의 판매가 저조하자 건강관리 및 여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전용 상품을 당초 계획보다 늦춰 올해 3분기중에 출시할 계획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투자업체 세정 지원 펼치겠다”

광주 온 전균표 국세청장



“광주·전남지역으로 전입되는 새로운 업체, 문화관광 관련업체에 대해 납기연장,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일 광주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전균표(54) 국세청장은 “지난해 재해피해지역 납세자와 경영여건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조치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청장은 “자진신고율 98.2%를 기록한 종합부동산세제, 현금영수증제도, EITC(근로소득장려세제) 등 주요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집행했다고 자랑한다”면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준 지방청 직원들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5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도 관련, 전 청장은 “지난해에만 발급금액 30조 7천억원, 발급건수 7억3천만건, 가맹점수 140만개를 달성하는 등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임 2개월만인 지난해 9월 제3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를 유치한 것도 전 청장의 열정에서 비롯된 성과로

기록될 만하다.

위기의 경제여건을 고려, 세무조사의 목적인 성실신고 담보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건수와 기간을 대폭 축소할 작업도 지역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05년 2만6천건에 달하던 세무조사건수는 지난해 2만2천건으로 줄었다.

광주청도 납기연장 8천500건, 조사유예 20건 등 지원 행정을 펼쳐 지역기업에 힘을 실어줬다.

전 청장은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삼척 출신으로 경북대와 홍익대 대학원을 나온 전 청장은 감사·국제조세·조사·세무 등 세계 전반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영구임대아파트 상가 31% '빈점포'

광주 143곳 중 45곳 매출 급감 등 여파로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 내 상가의 공실률이 치솟으면서 입주자들의 난방비 지원액이 대폭 축소되는 등 영세민들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주택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하남주공1단지, 서구 쌍촌주공, 북구 각화주공 등 광주 시내 7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점포 143곳 가운데 31%(45곳)가 비어있다.

이처럼 빈 점포가 늘어난 것은 주변에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데다 시설노후화와 입주민들의 빈약한 경제력 등이 맞물리면서 매출액이 날로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특히 빈 점포가 급증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보훈대상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그동안 광주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1만420세대 가운데 64%(6천725세대)는 상가 임대료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난방비를 지원받아 왔으나 빈 점포가 늘면서 지원액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실제 광주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의료보험 1종 기준)들은 지난해 10월까지 평당 3천원의 난방비를 지원받았으나 현재는 평당 1천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입주민들은 빈 점포를 사랑방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전환하거나 상가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뺏다방' 등 불법 중개소 일제 조사

국세청 30일까지

이른바 '뺏다방' 등 불법적인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6일부터 30일까지 미등록 또는 무자격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중개업 개설을 등록하고 세무서에는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미등록자 ▲지

자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관에 중개업 유사상호를 사용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사업자 등록자 ▲영업종단 뒤 폐업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뺏다방 등 불법적인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력이 있는 중개업소만 점검하는 만큼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국제의료기기전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의료기기전시회가 개막된 가운데 의료 관계자들이 메디컬 카메라 시스템을 조작해 보고 있다. 이 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아파트 하자 책임 1년 연장

방수 등 17개공사...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16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금보다 1년씩 늘어난다. 또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57개 공사중 17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지붕 및 방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는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으며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등 6개공사는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또 조정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등 9개

공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다. 또 방수공사, 유리공사 등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담보 공사항목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 부과내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리도록 했으며 300가구 미만 주택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뿐만 아니라 감리전문회사도 감리업무 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요건도 '사용검사 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시도가 필요한 경우 '15년이상 가스 및 소화설비'의 연수중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화 금융사기 주의 하세요”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남의 돈을 인출하기 위한 사기전화기 기습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은 15일 최근 남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기 위한 사기전화기 기습을 부리면서 광주지역에도 지역민들의 관련 문의전화수가 하루 20여통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내용은 금감원이나 은행, 검찰청 등의 기관이라며 신용카드가 잘못 사용됐다거나 수사상 필요하니 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개인신상 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지원은 “금감원이나 은행에서는 본인 요구없이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는 만큼 이런 전화는 모두 사기전화로,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광주지원이 밝힌 사기전화 유형은 금융기관 사칭의 경우 “연체대금을 입금해야 한다”거나 “신용카드를 구입한 물건값 결제에 착오가 있어 입금해주겠다”며 특정 계좌로 예금이체를 유도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세균 99.99% 제거

다물바이오텍 '백터시드'

병원에서 병이癒아 사망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세균감염 방지를 위한 기제들이 각광받고 있다.

(주)다물바이오텍이 보이지 않는 전염세균을 99.99% 제거하는 신제품 '백터시드'를 최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작물과 함께 나쁜 냄새와 세균을 없애주며 날아다니는 먼지까지 완전히 제거해준다.

병·의원, 동물병원, 대합실, 은행 등 10평 규모의 작은 공간에서부터 1만평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으며, 황사가 찾아오면는 예보에 따라 찾는 고객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회사 관계자는 “FDA(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JFCFA(유엔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 등 권위있는 기관들로부터 이산화염소 인정검증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문의 (062)531-2811.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마케팅과 디자인은 SASA & BARN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와 공간 연출을 보여주는 이미지들.

시제 · 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전통 한옥에서 즐기는 한옥음식

다양한 한옥음식 메뉴와 서비스 소개.

문의: 011-383-8283